

차.음료는 기본 “문화도 즐겨보세요”

부경대·경성대 앞 **이색 카페**를 찾아

부경대·경성대 앞에 이색 가게들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이들 대학 주변은 이색 풍경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로 붐비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한 작은 카페들은 차와 음료는 물론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서울의 홍대 앞 거리에 뒤지지 않는 부경대·경성대 앞 대학로 주변의 이색카페들을 찾아가 보았다.

NUVOLA 핸드드립 커피 진수 맛보다

이태리어로 ‘구름’이라는 뜻을 지닌 ‘누볼라(NUVOLA)’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가자기 한 소품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다. 테이블 간의 거리를 넓게 한 이곳은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하고 맘 편히 수도도 낼 수 있는 곳이다. 미니갤러리 형태로 꾸었다는 김서연 대표는 앞으로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핸드드립 커피가 이점의 자랑 중 자랑. 펜케이크와 오믈렛도 인기가 높다. 브런치는 6,000원대이며 요즘같은 시기엔 생딸기를 올린 딸기 팔빙수가 유명하다. 가격은 5,000~7,000원.

☎752-7991

301 입맛 사로잡는 유기농 건강음료

마치 아파트 301호에 들어온 듯한 느낌만큼이나 내 집처럼 편안하다. 안으로 들어서면 손님 대부분이 여성들이다. 이유가 있다. 서빙하는 종업원이 모두 꽃미남이다. 분위기가 또한 개쥬얼 하면서도 팬시적인 느낌이 팍팍 든다.

이 곳의 특징은 음식에도 있다. 모든 재료가 유기농이다. 주 메뉴는 인도요리를 한국인의 입맛에 맞춘 음료와 블루베리. 커피를 싫어하는 손님들이 주로 찾고 있다. 수제 요거트와 직접 만든 대추차와 오미자차도 환상적이다. 가격은 5,000~7,000원.

☎070-8631-0301

가정식 백반과 스무디가 만났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싶다면 부경대 북쪽 담벼락에 위치한 ‘얌얌(Yam-Yam)’으로 가볼 일이다. 작은 테이블이 아가자기하게 꾸며진 실내공간은 여기가 식당인지 커피숍인지 헷갈리기 일쑤다.

식사 외에도 커피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세트 메뉴를 주문 할 경우 가정식 밥을 먹고 난 후 후식으로 커피는 물론 스무디나 생과일주스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음료가 아닌 식사만도 따로 주문이 가능하고 식사만의 경우 5,000원대로 즐길 수 있고, 세트메뉴의 경우 7,000~8,000원이며 즐길 수 있다.

☎612-3062

떠먹는 피자, 이곳에 있어요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엠티(at home)’

은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남다르다. 담벼락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이층의 다락방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대학생들이 주로 찾고 있지만 주말이면 가족단위의 손님들로 만원을 이룬다.

인기 메뉴 중의 하나인 초코 폰당(choco fondant)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옛 훔탄의 메뉴다. 샐러드와 파스타를 함께 요리한 샐러드 파스타는 건강과 맛을 생각한 웰빙 음식이다.

이밖에도 이색적인 맛과 멋을 자랑하는 떠먹는 피자가 있다. 9,500~12,000원 정도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세트메뉴(22,000원)도 있다.

☎626-5404

긍정의 힘, ‘Yes’ 라고 소리치다

작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카페 ‘응’은 입구부터가 남다르다. 1층 계단 옆벽에는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남긴 글귀로 빼곡하다.

7080 낱새가 풍기는 듯 하다.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응’은 젊음과 자유가 뿜어 나오는 곳이다. 갑갑하지 않게 테이블 간의 거리를 멀리 뒀어 인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깔끔하다.

카페 한 쪽에 자리한 좌식 공간은 명석이 깔려 있어 시원함과 재미까지 더해준다. 이곳 역시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조용히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입소문 난 메뉴로는 찹쌀로 만든 모찌와플(9,000원)과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커피와 음료, 간단한 디저트도 맛볼 수 있다.

☎070-8711-0894

카페야 갤러리아?!

카페 속 갤러리로 인근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페인티드 체어(Painted Chair)는 1층 입구에서부터 카페 출입문까지 종이로 만든 작은 의자로 가득하다. 이 의자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이 만든 것으로 종이의자 판매수익금(개당 100원)은 작가들의 전시 후원금으로 쓰인다.

페인티드 체어는 2층과 3층으로 되어 있다. 2층에는 주로 차를 마시는 공간과 작가들이 만든 작은 소품이 전시되어 있고, 3층은 작은 갤러리로 꾸며져 있어 작품 감상과 함께 여유 있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있다.

갤러리는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신진작가들에게 열려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매달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외국인 작가 9명의 작품을 전시했고,

Da 카페에서 순대를 먹는다고?

순대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가게 외관은 깔끔하다. 가게 입구부터 보이는 소품들이 여기가 순대집이라는 생각을 잊게 한다. 판매도 한다면 별볼(?)이다.

순대 이름을 건 카페답게 다양한 순대음식들을 맛 볼 수 있는데, 작은 크기 기준으로 허브순대와 순대볶음을 5,000원에 즐길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반 분식집처럼 떡볶이(3,000원)와 어묵탕(8,000원) 등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다. 세트메뉴는 1만원. 또 음식을 즐기다 목이 칼칼할 때는 커피와 음료, 맥주 등을 5,000원대 전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907-5063

고양이가 진짜 있다

평범한 카페를 탐구하고 싶으면 위드캣(With Cat)을 찾으라! 가게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고양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들의 목에는 제 각각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붙여져 있는데 곤이, 치치, 투야 등 모두 개성적이고 예쁜 이름들이다.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의 행동과 성격이 모두 개성적이라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1인당 6,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면 음료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2시간의 시간제한이 있으며, 초과 시에는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손님이 직접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데려와도 이용이 가능하다.

☎625-9006

주영란·류진아 기자



깔끔한 실내인테리어를 자랑하는 'NUVOLA'의 내부 모습



유기농 건강음료를 맛볼 수 있는 카페 301



젊음과 자유를 느끼게 하는 카페 '응'



'엠티' 내부에 설치된 인상적인 조형물



동화 속 공간을 연상시키게 하는 순대카페 'Da'



밥도 먹고 음료도 즐길 수 있는 '얌얌'



편안함을 안겨주는 의자로 내부를 장식한 '페인티드체어'



고양이가 진짜 있는 카페 '위드캣'

민·관·학협의체 구성으로 대학로 조성 사업 물꼬 트자

대학로 창조도시 만들기 좌담회

경성대·부경대 앞 대학로 창조도시 만들기를 위한 좌담회가 지난달 30일 오후 부경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민수(도시공학) 경성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이종철 남구청장과 박맹언 부경대 총장, 김희복 경성대 부총장, 남승우 부산문화재단 대표 등이 참석해 대학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학로가 갖춰야 할 조건과 실현방안,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학로 현주소를 진단해 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김희복 부총장은 “지금까지의 대학로는 사실상 유흥가에 가까웠다”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공존방안을 찾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승우 대표는 “부산의 대학가 중 부산대, 경성대·부경대, 동대 앞은 창조지구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히고 “창조지구의 힘은 문화예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대학가에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해 보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종철 구청장… 대학로 조성은 남구의 역점사업, 부족한 문화공간 확충 필요
박맹언 총장… 홍대 앞 따라가기보다 지역 특성 살린 대학로 만들기가 급선무
김희복 부총장… 황령산~대학캠퍼스~이기대 있는 대학로 평화 트레일 개발해야
남승우 대표… 바다가 갖는 열림과 공존, 생명, 평화의 이미지 살린 계획 수립을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철 구청장은 “남구는 5개 대학과 52개 초·중·고가 밀집해 있고 UN기념공원, 평화공원, 부산박물관, 부산문화회관 등이 들어선 교육·문화의 중심지”라며 “대학로 조성 사업은 남구의 역점 사업인 만큼 좋은 의견을 모아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맹언 총장은 “그동안 대학이 지역발전에 무임승차했다는 느낌을 받을 만큼 제 역할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홍대 앞이나 서울 대학로를 따라가기보다 이곳만의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로가 다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이 이어졌다.

박 총장은 “부경대 담장이 허물기 사업으로 이 일대 변화가 일고 있어 이제는 대학 내의 창조 자원을 지역 사회로 내보낼 차례가 됐다”고 밝혔다.

김 부총장은 “대학가가 경제·문화를 아우르는 클러스터가 돼야한다”며 “우선은 대학의 문화·예술적 역할을 지역사회에 다시 흘러보내기 위한 문화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구에서는 그동안 부경대 담장 아래가 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벌였고 올해도 약 12억원을 들여 대학로에 걷고



국제신문이 주최한 경성대·부경대 앞 대학로 창조도시 만들기를 위한 좌담회가 지난달 30일 부경대에서 열렸다.

싶은 테마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며 “무엇보다 전선지중화사업이 중요한 만큼 한전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남 대표는 “대학로라는 공간이 갖는 정신적 가치와 철학적 이념의 바탕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한다”며 “바다가 갖는 열림과 공존, 생명, 평화의 이미지를 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대학로 평화 트레일’도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황령산 봉수대에서 출발해 경성대·부경대 캠퍼스~유엔공원~이기대를 연결하는 걷기코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대학로 조성을 위해 ‘민·관·학’ 대학로 추진 협의체”를 결성해 비전과 중장기 전략 등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남 대표는 “협의체는 관 주도 보다는 대학과 교수, 지역의 예술인, 문화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바람직하다”며 소프트웨어의 확보를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체는 부산문화재단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대안에 대해 김 부총장은 대학로 신론 창간을, 이 구청장은 부족한 휴식·녹지·문화 공간 해결 등을 제시했다.

대학가 ▲ 식

수중형 해양로봇 키드 개발

동명대학교(총장 강정남)가 ‘국내 첫 수중형 해양로봇키트’ 개발에 나서 8월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R&D역량강화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최초 ‘수중형’ 자율운항 해양로봇키트를 최근 개발해 전국적 주목을 받았던 동명대가 이번에는 국내 최초 ‘수중형’ 자율운항 해양로봇키트 개발에 박차를 가해, 해양로봇 선도대학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한편 동명대는 이번 키트의 개발·운용을 통해 해양로봇관련 경진대회 활성화 및 국제화, 해양로봇 관련 로봇인재 육성 등에 기여할 전망으로 교육용 로봇키트에 대한 올해 예상 세계시장은 17억 2000만 달러, 국내시장은 240억원 규모다.

부경대학교봉사단 발대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는 지난 13일 대연캠퍼스에서 부경ECO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나흘간 봉사활동을 벌였다.

봉사단은 18일까지 용호4동 청각장애인 최초 씨집 등 불우이웃 가정 5곳과 다문화가정아동센터, 새빛기독교복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헌정수리 봉사를 펼쳤다. 단원들은 5개조로 나눠 전문기술자들을 도와 헌집을 도배하고 장판을 교체했다. 또한 내·외부 페인트칠과 모기장 설치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달래줬다.

글로벌 해외인턴 취업 발대

경성대학교(총장 김대성)는 지난달 29일 누리생 활관 디지털이미지홀에서 글로벌 8기 해외인턴취업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외취업 인턴에 나서는 학생은 50명이며 싱가포르, 일본, 독일,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 인도, 알제리, 도미니카공화국, 루마니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으로 30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출국한다.

경성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 인제센터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323명의 해외인턴 파견을 통해 240명이 정규직으로 취업되는 성과를 거뒀다.